

무안군, 지난해 인구증가율 전국 13위... 이젠 ‘시(市)’ 노린다!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간담회 열고 남악·오룡지구 중심 인구 증가 성과 공유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30일 ‘인구늘리기 간담회’를 열고, 남악·오룡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 확대와 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안군의 최근 인구 증가 성과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안군은 인구가 2,391명이 증가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 2.65%로 13위를 차지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93,722명에 달해, 연초 대비 1,035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547명,

2025년 3월까지 134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다.

간담회에서는 ▲남악·오룡지구의 정주여건 ▲보육, 교육, 문화, 주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원 정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무안군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중장기 도시 비전과 농촌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다.

추진위원들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일자리와 청년 플랫폼 조성,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새벽배송 등 생활편의 서비스 확대,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강조



했다.

특히, ‘도시에서 개최하는 스포츠 및 관광 행사는 실패율이 거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도시형 사업 유지의 전략적 방향도 공유됐다.

이외에도, ▲컨벤션센터 건립과 같은 마이스(MICE) 산업 기반 마련, ▲5만 명

이상이 상주 가능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무안시 전환 가능성 검토, ▲대형병원 유치와 공공의료 지원 확대, ▲초등학교 내 돌봄센터 설치, ▲광역 교통망 확충, ▲찾아가는 인구 교육 강화, ▲산업단지 조성 및 광역 행정 기능 강화 등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설시장 수산물 코너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장흥 토요시장, ‘5월 가정의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최대 2만원 환급

30%를 할인받으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후 영수증을 지참하

고 환급장소인 상설시장 내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

이며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2025 순천마을스테이’ 예비 마을호스트 모집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역 마을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순천마을스테이 예비 마을호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천마을스테이’는 머무는 여행을 넘어 ‘삶을 체험하는 여행’을 지향하는 순천형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마을호스트’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투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사업체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 원도심,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권역 내 숙박업소로, 마을 여행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약 30개소를 예비 마을호스트로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마을호스트로 선정되면 숙소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중 교육과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소 내외의 숙소를 공식 운영 주체로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5월 1일(목)부터 5월 16일

(금)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네이버 설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과 순천마을스테이 공식 누리집(www.shila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월 12일(월) 오후 2시에는 순천생태비즈니스센터 3층에서 사업의 취지와 세부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오픈라인 안내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마을스테이는 로컬 가치를 지키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생형 관광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숙박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숙소는 2025년 8월부터 시작되는 ‘2025 순천 로컬여행주간’에 참여하여 숙박과 로컬 프로그램을 연계한 스테이형 여행상품을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순천시 및 순천마을스테이 플랫폼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웹캠 기프트 및 현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한국수자원공사, 함평군에 300만 원 물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 수도지원센터가 전남 함평군에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며 환경 보호와 지역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탰다.

함평군은 2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 수도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함평군 수돗물 사랑방부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함평군 내 43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2,565장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저감과 환경 보호는 물론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함평/전광훈 기자



고흥군, 고흥유자와 중국 해삼을 품은 ‘하이뉴’ 시음회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일 군청 우주홀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흥유자와 중국 해삼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음료 ‘하이뉴’ 시음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음회는 고흥 유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된 ‘하이뉴’를 소개하고 시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이뉴’는 지난 2023년 9월 공영민 군수가 농수산물 수출개척단 활동 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남농업기술원과 중국 산둥 불곤그룹 산하 식품 연구소가 협력해 개발한 건강음료다.

유자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해삼은 원기 회복에 효과가 있어, ‘하이뉴’는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기능성 음료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군 농업인대학, 토양건강진단으로 과학영농 실천

구례군은 지난 5월 1일, 농업인대학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토양건강진단과 시비 처방서의 이해’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토양 건강을 진단하고 적절한 시비처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본인의 경작지에서 직접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종합검정실에 분석 의뢰하여 시비처방서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토양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 계획을 수립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양검정은 토양 내 양분 상태를 분석해 불필요한 성분을 줄이고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는 과정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토양 환경을 보존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